

C[●]VID19

코로나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티케어의 역할과 전망

일시 | 2020년 6월 3일(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
주최



사단
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국회의원 김 상 훈

후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협력단체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사)서울시보건협회 한국사회봉사연합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복지 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 한 때에 골고루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전달되는지, 또 불법수급자가 없는지, 수급자들의 재화나 서비스에 남용과 오용을 막을 수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시민운동차원에서 감시,감독 연구를 통한 시민 옴부즈만 역할을 하고,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 차

【축 사】 박 능 후 보건복지부 장관	5
김 상 훈 국회의원	6

【주 제】 코로나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티케어의 역할과 전망

【주제발표】

황 명 진 교수	7
(고려대학교 공공사회학과장 / 복지 대학원 주임)	

【토 론 문】

이 진 한 기자	21
(동아일보 의학전문)	
사공 정규 교수	24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공 선 희 전문연구위원	30
(제주 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임 강 섭 팀장	36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	

【부 록】 본 연구회 소개	39
----------------------	----

프로그램

1 부

사회 : 김 기 영 교 수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 1) 개회선언
- 2) 국민의례
- 3) 축 사

2 부

사회 : 이 정 숙 회 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 진 한 기자 (동아일보 의학전문)
사공 정규 교수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공 선 희 전문연구위원 (제주 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임 강 섭 팀장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

3) 참관자 질의/응답

4) 총 마무리 발언: 황 명 진 교수

축 사

안녕하십니까.

‘코로나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티케어의 역할과 전망’에 대한 선진복지사회연구회의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커뮤니티케어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김상훈 의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사회적 입원이나 간병 살인과 같은 사회문제가 ‘돌봄 보장’에 대한 국가적 해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느끼는 돌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주거, 보건의료, 복지,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개인의 욕구(needs)에 맞춰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 복지, 돌봄, 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가 지역에서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과 동시에 이러한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연계·조정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만들어나가는 정책으로,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 주체와의 연계·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여 사회기반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환경을 살아가기 위해 방역 조치와 더불어 일상을 어떻게 회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지역사회도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민간 모두가 노력과 지혜를 함께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6. 3.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축 사

안녕하십니까.

대구 서구 국회의원 김상훈입니다.

먼저, 「코로나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티케어의 역할과 전망」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토론회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다시금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는 한번 더 강화되었고, 사회는 다시 제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코로나의 장기화를 우려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제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 기반 한 복지서비스들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취약계층이 전염병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는 점이 다시 한 번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대응과 더불어 지역보건과 커뮤니티케어가 가지는 중요성은 무엇인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토론회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토대로 저 또한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뜻깊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6. 3.

국회의원 김 상 훈

[주 제 발 표]

코로나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티케어의 역할과 전망

황 명 진 교 수

고려대학교 공공사회학과장 / 복지 대학원 주임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국제교류교육원장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코로나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티 케어의 역할과 전망

고려대학교 공공사회학과장
황명진

2020.06.03 토론회 주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김상훈의원실

CONTENTS



- 코로나시대의 뉴노멀
- 인구변천과 고령사회
- 돌봄시설과 탈시설화
- 커뮤니티 케어
- 의료복지 통합모형을 위한 노인분야의 과제
: 스마트 케어, 원격진료, 건강관리사

코로나19시대의 뉴노멀

● 코로나19 현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정보

원인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
감염 분류	- 법정감염병, 제1급감염병(전염성감염병) 분류 - 질병 코드: U07.1
병원체	SARS-CoV-2, Coronaviridae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
전파 경로	- 현재까지는 비말(침방울) 접촉을 통한 전파가 대부분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긴 비말(침방울)을 통한 전파 등 -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짐
잠복기	2~14일 (평균 5~7일)
진단 기준	- 증상: 신상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법원에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 혈액에서 바이러스 분자 - 혈액에서 특이 항원자 검출
증상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감염증에 해당함 그 외 기침, 인후통, 두통, 객담과 같은 임상 증상도 나타남



자료: 질병관리본부, 2020.05.20

코로나19시대의 뉴노멀

2020.01.20

국내서 1차 신종페렴 확진 자 첫 발생.. 우한 다녀온 중국인 여성

2020.02.03

개학은 연기, 입학식은 취소, 신종 코로나에 교육계 비상

2020.02.19

코로나19 하루만에 22명 확진 '악몽', 국내 총 53명

2020.02.18

대구서 31번째 확진 자 발생.. 해외여행한 적 없는 61세 여성

2020.02.21

이제서야.. '정부', 원격의료 한시 허용

2020.05.06

사회적 거리두기 오늘 종료.. '일일 신규 확진 자 100여명->9명 '

2020.05.07

용인 확진 자, 이태원 클럽 세 곳 거쳤다, 지역사회 2차 감염 우려

2020.05.19

고3 내일부터 매일 등교, 교육부 비상 근무체제

인구변천과 고령사회



● 저출산의 장기화

[그림] 대한민국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의 변화



자료: 통계청, 2019 인구동향조사

- 2019년 합계출산율 0.92명, 1명미만의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함

코로나19시대의 뉴노멀



● 코로나19 이후 시대

• 뉴노멀(new normal)

과거의 표준문명을 버리고 신문명으로 대전환 한다는 것

*“코로나19 이전 시대(BC; Before Corona)는 오지 않을 것,
코로나19 이후(AC; After Corona)를 대비하라고 강조..”*

- 언택트 이코노미(untact economy)
- 스마트 교육법(LG헬로비전, U+tv 아이들나라 등)
- 로봇시대(QR코드 메뉴판, 바리스타 로봇의 음료 제조, 로봇 서빙 등)

인구변천과 고령사회



● 사망률의 상승

[그림] 대한민국 사망자수와 조사망률의 변화



자료: 통계청, 2019. 인구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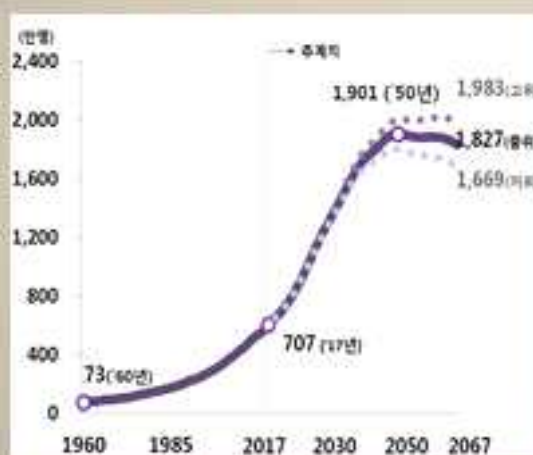
- 2019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추월, 인구절벽의 시작

인구변천과 고령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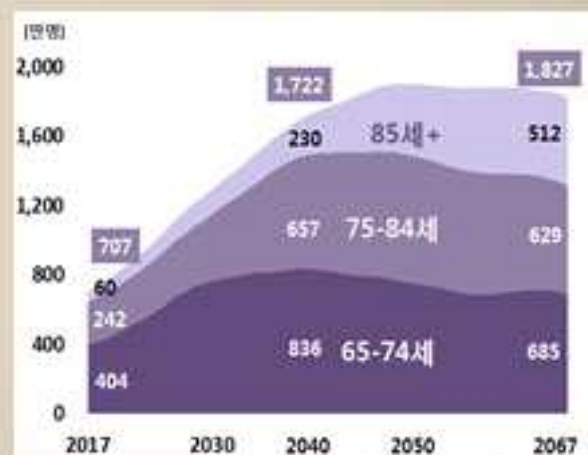


● 고령인구의 현황

[그림] 고령인구의 증가



[그림] 고령인구의 연령구조



자료: 통계청, 2019. 장래인구특별추계

- 2017년 노인인구는 707만명 → 2067년 1,827만명 예상
- 85세+(초고령인구)의 급증

인구변천과 고령사회



● 인구구조의 변화

[그림]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추계



자료: 통계청, 2019. 장래인구특별추계

-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 고령인구의 증가->고령사회의 진입

돌봄시설과 탈시설화



● 탈시설화의 정의

- 광의적 정의=>탈시설+화(化)

-기존의 시설을 개선하고 탈시설을 지향하는 일련의 과정과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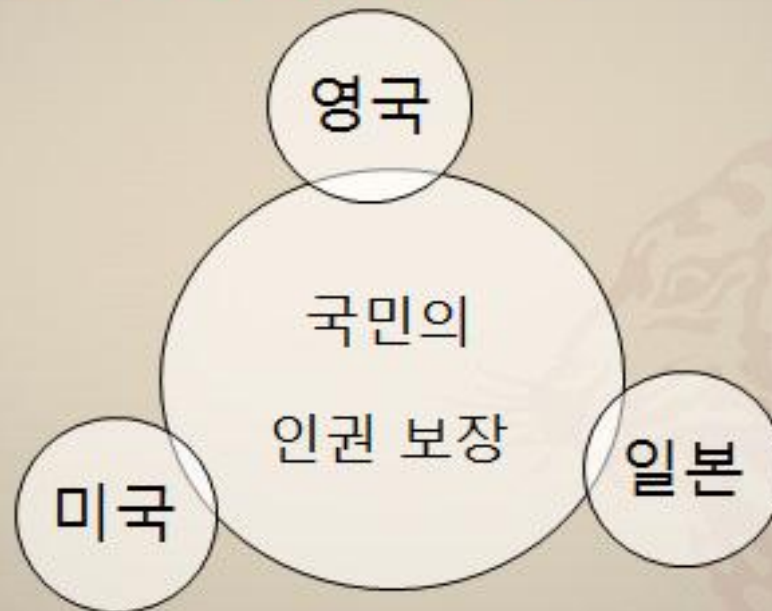
- 협의적 정의=>탈(脫)+시설화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의 보편적 주택에서 '자립생활'을 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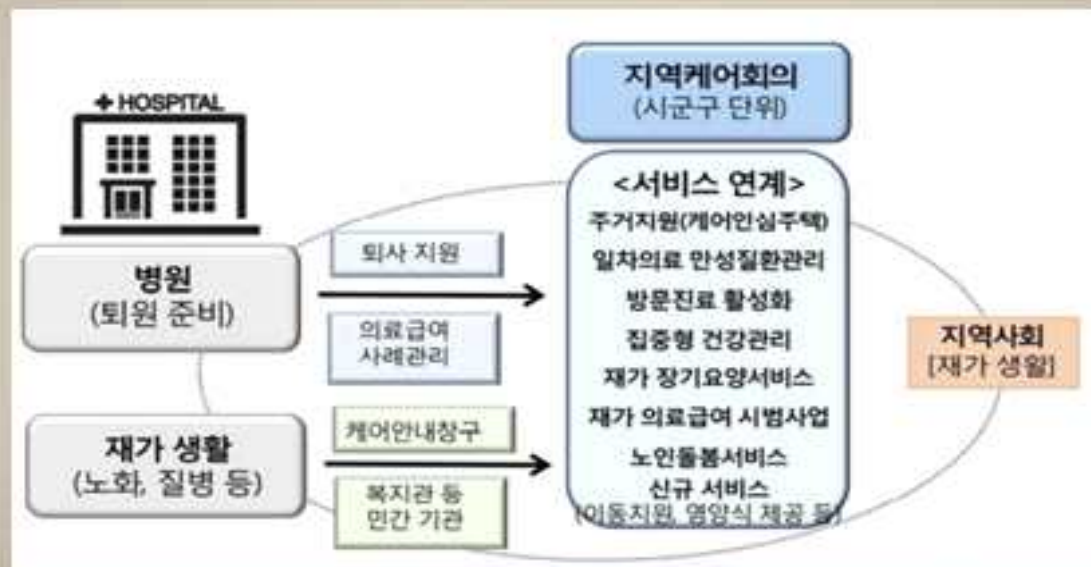
-시설화에서 벗어나는 의미

✓개인이 거주공간을 선택하고, 누구와 함께 살지를 고르고, 개인의 의지대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사생활이 보장되는 보편적 인권의 가치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미

● 외국에서 진행된 탈시설화는?



[그림] 커뮤니티케어 기본모델(노인)



자료: 보건복지부(2018)

커뮤니티 케어



[그림] 커뮤니티 케어 기본계획 로드맵



자료: 보건복지부(2018)

돌봄시설과 탈시설화



● 탈시설화(정책)의 목표

- 거주공간을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이전
- 가정과 같은 보편적인 환경에서 거주서비스 제공
- 제약을 최소화함으로써 거주인의 자율성 보장
- 사생활과 소유권을 보장
-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 회복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커뮤니티 케어

- 2019년부터 진행되고있는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의료복지 통합모형을 위한 노인분야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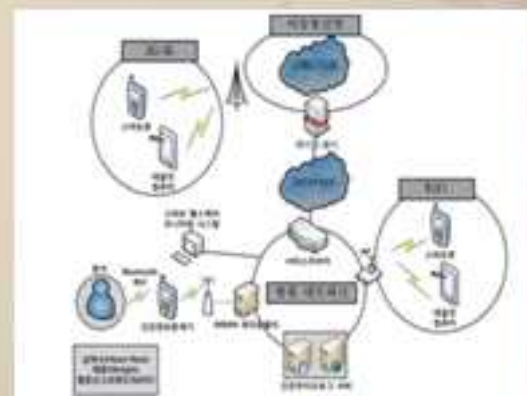
● 스마트 케어

● 스마트 케어:

의료와 ICT기술의 융합으로 환자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모선통신을 통해 환자의 상태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의료서비스를 받고 모니터링이 가능



[그림] 의료용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네트워크 모델



자료: 홍수형, 주병권(2020)

● 커뮤니티 케어는 왜 필요한가?

돌봄 문제의 보편화	탈시설화의 대두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 우려
- 고령사회로의 변화로 돌봄에 대한 수요 급증 - 미흡한 재가서비스 -> 여성(가족)의 돌봄 부담 증가	- 불편해도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 - 회전문 현상 (시설거주자의 경우 퇴원하여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싶으나, 결국 다시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	- 돌봄에 대한 지출 급증 ->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 야기 - 노인의 건강보험 진료비, 의료급여 등

● 커뮤니티 케어의 사회적 가치: '포용적 복지'



커뮤니티 케어



● 커뮤니티 케어

•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케어가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집, 그룹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 서비스 정책

*AIP(Aging In Place): 자신이 살던 곳에서 나이 들어가기

<표> 커뮤니티 케어의 의미

구분	중앙으로서의 지역사회 (in the community)	지방으로 권한이탈 (decentralization)	주체으로서의 지역사회 (by the community)
등급	지역사회 등급	지역사회의 등급참여	등급의 분권화
치료, 간호	지역사회 치료	치료역인 지역사회	의료의 분권화
관심, 지원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지지역인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분권화

자료: 김흥복, 2018

의료복지 통합모형을 위한 노인분야의 과제



• 최첨단 AI와 로봇을 활용하여 발달장애아동을 돌보는 '스마트케어서비스'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발달장애 아들에게 꼭 필요한 전문 상담사의 방문 상담이 불가능해지면서 발달 장애아들과 전문 상담사간 로봇기간의 원격 상담 기능을 제공하여 발달장애 아동의 정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그림] 창원시, AI 로봇기반 발달장애 아동 스마트케어 서비스 개념도



의료복지 통합모형을 위한 노인분야의 과제



● 원격진료

- 원격진료(Telemedicine): 의학과 통신의 통합으로, 원격지에서 환자의 검사, 관리 더불어 환자 교육 및 의료진들에게 의료지식 및 기술 등을 지원 및 시행하는 것을 의미
- 원격진료는 재택진료, 원격화상회의, 원격 PACS, 원격영상진단, 원격 교육, 인터넷 가정 병원 등에 응용가능

<표> 정부의 원격의료 유형 구분

유형구분	행위	설명
의료인 사이의 원격의료	원격자문 (의료상담+자문)	의사가 의료인의 의료과정에 대해 원격자문(원격 방문간호, 원격응급의료, 원격자문 등)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원격모니터링 (파악+해석+상담)	의료인이 환자를 지속적 모니터링 상담 및 교육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원격진료 (질병진단+처방)	의료인이 대면진료를 대체하여 원격으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처방전 발행 등 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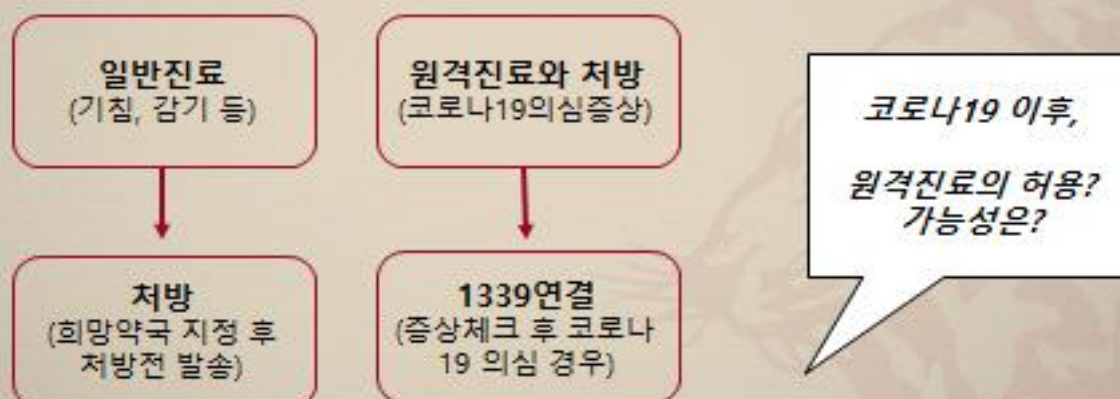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2013)

의료복지 통합모형을 위한 노인분야의 과제



● 원격진료: '코로나19'서비스

“코로나19 원격으로 처방 받으세요”, 코로나19 원격진료 서비스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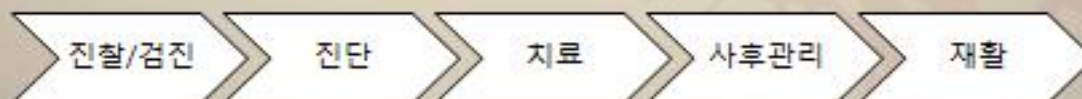
의료복지 통합모형을 위한 노인분야의 과제



● 건강관리서비스와 건강관리사

- 건강관리서비스는 2007년 4월 국가 생애전환기 검진 실시 이후 검진의 '사후 관리' 개념으로 도입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검진 후 만성질환 고위험군 또는 건강이상 진단을 받은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대상자의 경우 사전예약 후 가까운 건강증진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운동처방, 식단추천 등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 건강관리서비스는 직접적인 의료인 개입을 필요로 하는 치료를 제외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모두를 포괄하는 포괄적인 개념

[그림] 단계별 건강관리서비스 체계와 개념



자료: 김정옥(2019)

의료복지 통합모형을 위한 노인분야의 과제



● 건강관리사의 도입

[표] 건강관리서비스 유형

유형	내용
건강위험도 평가 결과 및 건강상태 상담	-건강위험도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개인별로 필요한 서비스 가이드 -신체 계측 및 자기모니터링 교육
생활습관 개선 교육	-절주, 금연, 체중조절 등 생활습관 개선에 대한 교육 및 상담 -개인별 checklist 작성 및 활용 교육
영양, 운동요법 지원, 지도 및 훈련	-영양지도, 운동지도 평가 -건강목표의 설정, u-health 기기 활용 건강상태 측정 -개별적 전화상담, 는 발송 등을 이용한 점검
건강관리정보 제공	-건강관련 인터넷 사이트 안내, 건강관련 책자 발송
건강상태의 지속적 점검 및 관찰	-지속적 교육, 훈련, 상담 및 모니터링

- ✓ 건강관리서비스 및 커뮤니티 케어 즉 의료, 원격, 돌봄 등의 진행에 있어 각 분야를 조율할 수 있는 건강관리사 도입필요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 김도희(2018). 탈시설화와 커뮤니티케어, 월간복지동향, 236, 52-56.
- 김용득(2018). 커뮤니티 케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월간 복지동향, 238, 5-10.
- 김정옥(2019).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정책포럼회: 선진국형 서비스산업 발전방향.
- 국민일보, 코로나가 앞당긴 로봇시대, 기술은 어디까지 왔을까
(<https://news.joins.com/article/23731344>)
- 보건복지부(2018).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
- 시사저널, 세계석학들이 내놓은 코로나19이후 시대 생존비법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320>)
- 중앙일보, 코로나19 원격으로 처방받으세요, 코로나19 원격진료 서비스시작
(<https://news.joins.com/article/23731344>)
- 창원시(2020). AI로봇기반 발달장애아동 스마트케어 서비스 개념도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90313154726752>)
- 통계청(2019). 2018년 인구동향조사.
- 통계청(2019).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년-2067년.
- 홍수영, 주병권(2020). IoT기반의 스마트 헬스케어 적용 및 사례분석, 한국통신학회지(정보와통신), 37(4), 31-38.
- 황승현(2018). 커뮤니티케어(지역기반케어) 추진 로드맵,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25-38.

토 론 문

이 진 한 의학전문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차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겸임교수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다. 이미 2000년에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2% 즉 '고령화 사회'가 됐다. 2017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14.2%인 711만명에 달해 '고령사회'로 진입, 2025년에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2025년이 되면 노인 인구 1000만명, 치매환자 100만명에 가까워지는 사회에 돌입한다. 이런 상황이 되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

◆ 코로나 노인층 등 취약계층 위협

우리가 코로나 이후 이처럼 노인들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80세 이상 노인들에게 코로나가 감염되면 사망률이 26% 즉 거의 30%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처럼 코로나는 고령층 영양부족계층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질환 만성호흡기질환 면역질환 등 상대적으로 환경과 건강에 취약한 계층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여러 가지가 복합질환을 가진 노인층에서 가장 취약하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어르신 57.6%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어 한다고 대답을 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병원이나 시설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이 많고 재가인 경우도 제대로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가족들에게 돌봄에 대한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결국 많은 노인인구가 아프면 집 주민센터 복지관 보건소 병원 등을 순회하면서 결국 돌봄 지출에 대한 급증도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청도대남병원에서 103명이 입원자 중에서 확진자만 101명으로 나왔고 이중 사망자가 7명이 나왔다. 정신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치료보다는 오히려 그곳에서 감금을 통해 몸과 마음이 황폐화 된 것을 이번 코로나를 통해 여실히 알 수 있었다. 커뮤니티 케어가 바로 이러한 탈시설화 및 지역에서 정신보건과 일차 의료 및 지역통합 돌봄의 역할이 중요한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지역통합 돌봄 등의 커뮤니티케어가 제대로 정착됐더라면 이러한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개인이 거주공간을 선택하고 누구와 함께 살지를 고르고 개인의 의지대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사생활이 보장되는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가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도대남병원의 코로나 사태는 이러한 기본적인 인권들이 전혀 보장이 안 된 것을 알 수가 있다.

◆ 환자를 위한 방문서비스 활성화

예전에 의사들이 환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왕진서비스가 활성화 됐었지만 현재를 낫설기만 한 제도이다. 의사들이 환자를 찾아가는 왕진을 하려면 하루에 3,4명 정도 보면 하루가 다 간다고 보면 된다. 이를 활성화 하려면 왕진관련한 수가가 충분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방문간호를 통해 의사의 왕진을 대신 할 수 있다. 이때는 의사와 간호사가 실시간으로 연락하는 원격의료의 지원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현장에서 직접 파악하고 또 직접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결국 원격의료의 활성화는 바로 급증하는 노인질환을 제대로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 원격진료가 힘들면 꼭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찾아서 부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재활 난민이 여전히 많음

우리나라는 뇌출혈 등으로 급성기를 치료한 뒤 한달이 지나면 급성기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퇴원의 과정이 시작된다. 하지만 후유증으로 일상생활능력이 떨어져 퇴원 뒤 혼자서 식사를 하고 이동하거나 생활하는데 어려움 때문에 퇴원을 꺼려하게 되고 결국 이들은 요양병원 등을 전전하게 되는 재활난민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입원 초기부터 환자는 병원의 지원을 받아 지역연계실에서 퇴원계획을 수립하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토 론 문

사 공 정 규 교 수

현)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현) 동국대학교 심신의학연구소장

현)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현) 교육부 위(Wee)닥터 자문의 대표

현) 대한민국힐링문화진흥원 이사장

현) 한국생명운동연대 공동대표

현) 한국자살예방협회 정책위원장

전) 하버드의대 우울증 임상연구원/방문교수

전) 보건복지부 한국우울형표준진단평가지침개발연구위원회 위원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2019('Corona Virus Disease 2019', 이하 코로나19) 불안, 어떻게 할까요?

1. 우리나라 코로나19 불안의 현황

지난 4월 경기연구원의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정신건강 설문조사’ (신뢰 수준 95%, 표본 오차 $\pm 2.53\%$)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47.5%가 코로나로 인한 불안/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시민의 불안/우울감은 전국 평균보다 약 20% 높은 65.3%로 나타났다.

이어 코로나19가 안겨준 스트레스는 메르스의 1.5배, 경주/포항 지진의 1.4배, 중증 질환의 1.3배, 세월호 참사의 1.1배 등 타 재난과 비교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49.6%는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심리정신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로 볼 때, 코로나19는 사회·경제적 손실과 경제 위기 못지않게 국민 정신건강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멘탈데믹(mentaldemic)에도 대비해야 한다.

2. 불안이란?

불안(不安)은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불안은 태초부터 인류와 함께 했다. 원시시대 인류는 자연과 동물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함에 대한 불안이 있었다. 호랑이와 같은 맹수를 만났을 때 불안했던 인류가 불안해하지 않았던 인류보다 생존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불안은 원시시대때부터 위험에 많이 노출된 환경에서 생명을 지켜 내고자 한 생존본능에서 기인한 것이다.

현대에는 원시시대와는 또 다른 많은 불안들이 도처에 만연해 있다. 진학에 대한 불안, 직장에 대한 불안, 결혼에 대한 불안, 경제적인 불안, 건강에 대한 불안, 노후에 대한 불안, 게다가 느닷없이 당하게 되는 각종 사고에 대한 불안, 최근에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불안이 도사리고 있다.

3. 모든 불안은 비정상적인 것 인가?

불안은 친숙하지 않거나 위협적인 환경에 적응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반응이다. 불안은 위협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위기 상황에서 불안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소중한 신호이다.

현실적인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거나, 현실적인 위험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게 심한 불안을 느끼거나, 불안을 느끼게 한 위협적인 요인이 사라진 후에도 불안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이면서 그 불안이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적응 영역에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면 비정상적인 불안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불안의 대부분은 우리가 두려워할 병리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럴 수 있는 또한 지나가는 일반적인 반응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불안은 불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한 의미 부여, 수용을 통해 창조적 동기와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

4.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은 무엇인가?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은 아래의 4가지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 번째, 본인의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주변으로의 전염 우려’에 대한 불안이고, 두 번째, 본인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치료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불안이고, 세 번째, 본인의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주변의 비난에 대한 불안이고, 네 번째,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을 것 같은 불안이다.

5. 코로나19 불안, 어떻게 할 것인가?

코로나19에 대한 걱정 수준의 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을 잘 지키게 하여 코로나19의 감염 방지와 극복에 큰 도움이 된다. 다만 코로나19에 지나칠 정도의 불안은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기에 몇 가지만 말하려 한다.

1) ‘코로나19 주변으로의 전염 전파 우려’로 인해 불안을 보이는 분들에게

코로나19 감염에 나도 모르게 걸려 ‘주변으로의 전염 우려’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을 잘 지킨다면 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눈, 코, 입 만지기 전 손 씻기, 마스크 쓰기, 사람과 사람간 2M 거리 두기 등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을 지킬 때 감염의 우려가 사실상 0%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한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4.15 총선에서 약 2800만명이 투표했지만, 투표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는 0명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신체적 거리 두기와 코로나 위생의 기본만을 지킨다면 코로나19 전파는 없다는 교훈을 얻은바 있다.

2) ‘코로나19 감염 자체’에 대한 불안을 보이는 분들에게

내가 그냥 “코로나19 너무 불안해하지마세요.”라고 말한다고 해서 불안이 경감되는 않을 것 같아 코로나19 감염 불안 경감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내가 몇 가지 팩트에 근거한 비교 설명을 하고자 한다.

코로나19 팩트 : 코로나19 감염증이 우리나라에 1월 20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131일째인 5월 29일 0시 기준 현재 확진자수 11402명 사망자수 269 명이고, 사망률 2.4%이다.

이제 비교 팩트를 시작하겠다.

비교 팩트 1 : 2018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8년 우리나라는 23,280명이 폐렴으로 사망했다. 참고로 코로나19 131일째 기준 현재 사망자수 269명이다.

비교 팩트 2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독감(인플루엔자)으로 인한 직접 사망자수는 연평균 402명이라고 한다. 독감의 영향으로 사망한 사례까지 포함한 기여 사망자수는 연간 2370명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참고로 코로나19 131일째 기준 현재 사망자수 269명이다.

비교 팩트 3 : 2020년 3월 말 현재, 행안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51,843,195명이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수 11402명이니,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은 인구대비 0.022% 이고, 10만명당 22명이다. 현재 코로나19 사망자수 269명이니, 코로나에 감염되어 사망할 확률은 0.0005%이고 인구 10만명당 0.5명이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만에 하나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80%는 무증상이거나 경증으로 자신도 모를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지나 갈 정도로 저절로 치유되는 것이고, 나머지 20%도 치료하면 된다.

우리나라 의료진들의 실력은 세계 최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병의원 진료의 문턱이 높지 않은 국민의 입장에서 환자의 입장에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의료제도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의 의료진과 치료의 기회가 용이한 의료시스템을 갖고 있는 최고의 의료 선진국이기에 치료에 대한 지나친 걱정은 안 해도 된다.

3)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주변의 비난에 대한 불안을 보이는 분들에게

국민 대부분은 코로나19 환자와 확진자에 대해 위로와 응원을 보낸다. 스스로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을 잘 지킨다면 감염될 확률도 지극히 낮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되었다면 그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이고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

특정 집단이나 특정 개인을 분노와 원망의 혐오 대상으로 규정하고 공격하는 일부의 사람들은 본인의 코로나19 불안에 대한 잘못된 해소 방식이다.

우리 모두에게 말한다. 코로나19 환자와 확진자들은 오히려 코로나19의 피해자이고 희생자이다. 이들을 분노와 원망의 혐오 대상으로 규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오히려 그들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으므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코로나19 환자와 확진자들은 치료받아야 할 의학적 환자이고 보호받아야 할 우리 국민이다. 코로나19 환자와 확진자들을 향한 우리들의 따뜻한 마음과 응원은 그들에게 최고의 치료 촉진제이자 쾌유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응원하자. 우리 모두는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이다.

4) 코로나19로 인한 소위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 등으로 인한 외로움, 고립감을 호소하는 분들에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말처럼 우리는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부대끼는 사회적 행위에서 친밀감을 느끼곤 했던 삶에서 소위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갑작스러운 변화는 서로 마음이 멀어지는 것만 같아 괜히 뭔가 허전해지고, 외로움과 고립감을 초래할 수 있다. 소위 사회적 거리 두기는 신체적 거리 두기이지 마음으로부터 멀어짐이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된 우리의 일상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고, 또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와 자신만의 시간의 소중함도 일깨워 주었다.

홀로 있음을 스스로 마주하고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의미 부여한다면, 홀로 있음이 결코 외로움이나 고립감이 될 수 없다. 내가 가장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도 잘 지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오롯이 혼자인 시간을 가져보면서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깨달을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더 건강해질 것이다.

혼자 잘 지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보상심리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집착한다면 그것은 정신이 건강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꼭 대면 만남을 해야만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집착을 놓아야 한다. 우리가 대면 만남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싶다. 하지만 동시에 독립된 자유로운 개인으로서의 나로도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홀로 있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또 같이 함께 있을 수 있을 것이다.

5)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불안으로 희망을 잃는 분들에게

감염병이 끝나지 않은 역사는 없다. “이 또한 지나간다.”
지금 우리는 소위 사회적 격리, 외부활동이 줄어든 생활 등으로 인한 외로움, 고립감 여기에 실질적 경제적 손실 등으로 인한 위기감 등으로 무력감, 우울감 무망감으로 지쳐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조급해하지 마라. 그러나 희망을 잃지 마라. 2002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중후군)는 우리나라에서 114일만에 종식되었다. 2009년 신종플루는 우리나라에서 484일만에 종식되었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중후군)은 우리나라에서 218일만에 종식되었다. 코로나19 감염증은 우리나라에 1월 20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5월 29일 기준으로 131일째이다.

코로나19도 언젠가는 종식된다. 코로나19가 종식된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는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가 서로에게 희망이 되고 새로운 희망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6)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 불안을 느끼는 모든 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은 높을 수밖에 없었다. 불안을 검토해보는 시간을 따로 정해 놓고 그 이외의 시간은 일상적인 일에 집중해보자.

언제 어떤 내용으로 불안(또는 걱정)했는지,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랫동안 불안(또는 걱정)했는지, 스스로 관찰하고 불안(걱정)을 기록해보자. 불안을 일으키는 걱정들이 과연 현실적인지 또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런 걱정의 검토 과정을 통해서 불안(또는 걱정)의 비현실성과 비효율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도 불안이 남아있다면, 무조건 불안을 없애려고 하기 보다는 불안이 남아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과거의 문장 형태로 하라. 예를 들면, “이러한 걱정 때문에 불안했다.” 라고 하라. 불안한 마음이 수용되어 안정이 된다면, “이러한 걱정 때문에 불안했지만, 지금은 불안하지 않다.” 고 선언하라.

“코로나19를 조심하지 말자.” 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 “코로나19 예방행동 수칙은 철저히 지키자.” 다만,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코로나19 불안이 너무 과도할 필요는 없다. 나의 이러한 언급들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코로나19에 가지는 불안이 경감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6. 결어

코로나19 종식이 선언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극복하기 힘든 불안감과 우울감 그리고 우리 서로가 불신과 혐오가 있다면 그 위기는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팬데믹(pandemic)과 멘탈데믹(mentaldemic)이 함께 치료되고 치유되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치료는 물론이고 개인의 정신건강과 사회적 정신건강까지 함께 이루어야 코로나19가 진짜 종식된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위기(危機)는 위험이자 기회이다.

우리는 모두 마음의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 사회도 우리 대한민국도 사회적 역사적 트라우마가 있다.

그러나, 개인이나 사회는 ‘외상후 스트레스 반응’이 아닌 ‘외상후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19후 스트레스 반응’이 아니라 ‘코로나19후 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토 론 문

공 선 희 전문연구위원

제주 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제주연구원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연구교수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코로나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티 케어의 역할과 전망>에 대한 토론

공선희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 전문연구위원)

2020. 6. 3(수) 24:00

국회학원회관 제2세미나실

코로나19 이후 고령사회정책

지역사회 통합돌봄
(community based care)의
방향과 과제

- 고령층의 지역사회 계속거주
(Ageing in Place) 지향 필요

제주지역 어르신 대상 2020. 5월 조사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n = 253

거동이 (더) 불편해지면
어디에 살고 싶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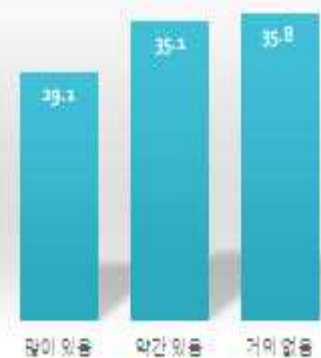


- 최근 코로나19로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64.2% (변화 많음 + 약간 있음)

최근 코로나사태로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변화가 생겼습니까?

(n=253, 단위: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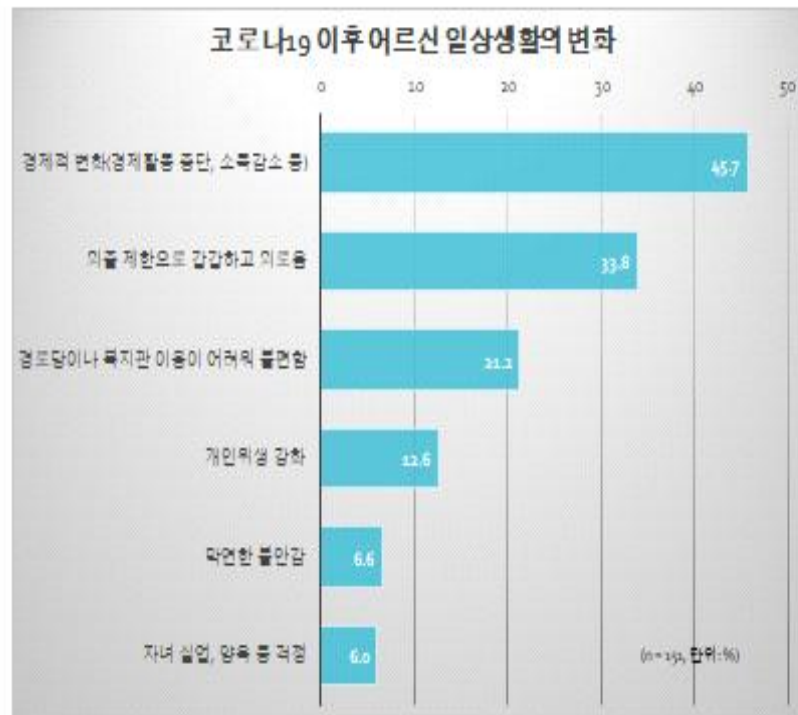
1. 정보통신기술(ICT)의 부상

- 스마트케어, 원격진료, AI 로봇 등 ICT 활용한 대응방안의 사각지대
- 고령층은 낮은 문해력과 디지털 격차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대책에서 소외되는 노인이 많을 것
- 현재 고령층의 정보기술 활용 능력이나 습득 기회 매우 제한적
- 긴급재난대응 정보 확인도 어려움
- 향후 베이비부머의 고령층 진입 완료로 10년 이내 변화 전망
- 2월말 이후 노인들의 천막공간인 경로당과 복지관 운영 중단
- 노인일자리 사업도 중단
- 거동불편한 어르신은 방문서비스조차 감소, 안부전화로 축소 운영
-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 길어져, 지역노인들의 고립, 우울감 증가
- 젊은층과 달리, 인터넷 통한 영화보기, SNS, 독서, 온라인쇼핑 등 다양한 선택지가 고령층에선 그림의 떡
- TV가 유일한 친구
- 고령층 특유의 인내심으로 견뎌내고 있지만, 코로나19의 높은 치명률 공포 속에서 고령층의 삶의 질은 위기에 직면

코로나19 사태로 고령층의 일상생활에 나타난 변화

(제주 75세 노인대상 2020.5월 조사)

- 3순위 경제적 소득감소 일차리 응답
- 2순위 외출 제한으로 방문서비스 이용률
- 3순위 경로당, 복지관 이용 못함 불편함



코로나19 사태가 고령층의
일상에도 많은 변화 가져왔
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언택
트 이코노미(untact
economy)에서 배제되는 노
인들 고려한 대책 필요

1. 경로당, 복지관 등 공공시설 운영방안과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해서 유
사한 상황에 대비
2. 집과 동네에서 <거리두기>를 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활동과 프로그램
제공
3. 평생학습(ICT교육, 문해교육 등)을 통해서 자립적이고 자존감 있는 노년기
지원
4. 청년, 중년, 아동, 노인이 함께 하는 다세대 통합형 접근과 사업, 프로젝트 발
굴 추진
5. 새로운 형태의 지역 유대감 형성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과 거점구축

-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노인돌봄 패러
다임을 전환하여, 2019년 시작된 지역
사회 통합돌봄(communit care) 정책
- 13개 지자체에서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 중
- 서귀포시, 2019년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
- 코로나19 사태로 앞당겨진 사회변화
가운데 하나가 '지역사회'의 중요성 재
인식하게 된 것
- 일상의 소중함 재인식, 가족과 함께 시
간 보내는 사람들 늘어나
- 고령자에게는 지역사회, 커뮤니티 공
간의 중요성 재인식하게 됨
-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필요
- 탈시설화 + 정상화(normalization)
- 지역사회 계속거주(AIP) 지향
- 재정부담 완화
- 가족 돌봄부담 경감

어르신께서 거동이 불편해지면,
동네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n=151)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 고령화시대 다양한 주거양식 고민

- 살던 곳을 등지고 낯선 시설이나 병원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음
- 다양한 노인 주거양식이 개발되고 보급되어야 함(모델 개발)
- 공공임대주택, 열악한 주거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정책 수요(공간 개선)
- 자가격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집의 공간적 한계에서 오는 답답함
- 이웃과 일상적으로 안부 주고받기
- 친교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예. 동네부엌, 마을식당)
- 제주의 독특한 <안거리 밖거리> 주거문화를 되살려서 어르신과 청년층이 함께 사는 형태 개발



감사합니다

- 
-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 www.afcjeju.com
- 

토 론 문

임 강 섭 팀장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기술개발과

I. 서론

- 커뮤니티케어 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더 강조할 필요는 없을 거 같고, 발제문에서도 적절히 제시한 거 같음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전방위적 파급력에 대해서는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나 우리 모두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인 전 영역에 있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해 보임
 -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서구의 요양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의 문제는 대규모 생활시설(주거시설)에서의 집단생활의 적절성에 대해 중요한 함의를 던져 주고 있음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영향 속에서 지역보건과 커뮤니티케어의 역할과 전망을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 자리는 매우 의미있고, 시의성이 있어 보임
- 발제문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가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칠 광범위한 영향 속에서 커뮤니티케어의 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과제를 적절하게 제시한 것으로 보임

II. 본론

- 커뮤니티케어의 대상자와 지향과 관련하여
 - ‘탈시설화’의 정의에 대한 관점은 흥미로움
 - 커뮤니티케어에 있어서 ‘탈시설’이 중요한 정책목표이고, 탈시설화가 필요한 대상자가 중요한 타겟 대상자임을 부인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임
 - 이미 아는 사실이어서 별도로 언급을 안 하신 것 같지만, 분명하게 해 두자면, 커뮤니티케어의 정책대상자를 단순화하자면, ‘탈시설화’가 필요한 대상자 뿐만 아니라 지금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지만 선제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만간이던 장래의 어느 시점에 시설(병원)에 입소(입원)이 불가피하게 예상되는 정책 대상자에 대한 사전 개입을 통한 예방가능한 입소(입원)을 지연하거나 방지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목표이고 이들도 개입이 필요한 대상자로 보고 있음
- 첨단기술의 활용
 -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편리성과 관련 정책 목표의 효과성, 효율성 등을 높이는 것은 많은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음
 - 커뮤니티케어의 추진에 있어서도 이러한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자립적인 재가 생활을 지원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일례로 작년 6월부터 전국 16개 기초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서도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노인과 장애인의 재가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음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재가 생활을 하는 대상자 건강과 생활을 비대면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서비스 또한 필요할 것임

- 물론 아직까지 또는 가까운 미래까지도 비대면서비스가 대면서비스를 완전히 또는 충분히 대체하지는 못 하겠지만, 첨단기술과 대면서비스 간의 적절한 조화를 통하여 대상자의 재가 자립생활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선제적·포괄적인 건강관리의 중요성

- 사전예방과 건강유지·증진의 중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임
- 또한 보건의료정책이나 커뮤니티케어의 추진에 있어서도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추구하는 것인 필요해 보임

□ 건강관리사의 도입

- 선제적·포괄적인 건강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무관하게 건강관리사의 도입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건강관리사가 새로운 자격을 도입하자는 것인지, 자격의 종류와 기능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는 서면 발제문으로는 확실하지 않으나, 기존의 자격·면허 또는 직종에서 건강관리사가 의도하는 역할과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또는 그 역할과 기능의 수행이 기존의 자격·면허 또는 직종에서 불충분한 것인지, 새로운 자격이 기존의 자격·면허 또는 직종과 중첩 또는 중복되는 기능이 없는지, 새로운 자격이 또 하나의 자격이 되어 자격 간 칸막이나 배타성을 낳아 통합을 더 어렵게 만들지는 않을지 등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III. 결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영향 속에서 지역보건과 커뮤니티케어의 필요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시의적절하게 짚는 자리에서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누어야 할 고민을 던지는 발제인 거 같음
- 첨단기술의 활용과 선제적·포괄적인 건강관리의 중요성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것이며 이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음

부 록

- ◆ 연구회 소개
- ◆ 연구회 토론회 개최 연혁
- ◆ 공지사향
- ◆ 협력기관

■ 연구회 소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 설립목적 :

대한민국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데 필요한 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를 위한 각종 연구, 조사, 계몽 활동 및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파악 및 해소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고 이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목적으로 함.

● 연 혁 :

- 2009. 10. 15 창립
- 2011. 1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경기도 제 1237호)
- 2012. 10 법인설립허가 (경기도 제 2012-01-90호)
- 2013. 07 기획재정부 지정기부단체 등록
- 2014. 09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시민사회소통부 협력단체
- 2014. 11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보건복지부 제 196호)
- 2013~ 『제 2인생 설계를 위한 전문가 과정』
시니어LIFE코디네이터 자격증 수여/보건복지부 승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등록번호2015-001578)
- 2009. 10~ 분기별 복지 현안정책 토론회 개최
- 2014~ 성남시 사회복지박람회 부스 운영 참가
- 2015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
- 2015 휴먼네트워크 멘토링 지원사업
- 2016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나눔국민운동본부 권역별 나눔교육 수행기관
통일부 『통일박람회』 참가-부스명: 통일이랑 복지랑 step by step!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방송물 모니터링사업
『제 7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참가-부스명:오병이어를 만드는 사람, 사람들
- 2017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지원사업 선정
나눔국민운동본부 권역별 나눔교육 수행기관 선정(보건복지부)
제 8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부스참가
하반기 경기도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 선정
- 2018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인활동지원사업 선정
경기도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선정
나눔교육운동본부 생애주기별 나눔교육 선정 (보건복지부)
제 9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부스참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스마트 기술 및 조달전시회 컨퍼런스
- 2019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인활동지원사업 선정(5년 연속)
제 10회 대한민국나눔대축제 부스 운영 (10.5~6일)
제 5 회 (그룹홈)청소년과 중장년층이 함께 하는 멘토링 공감여행(8.17~18)
제 5 회 중장년세대 Begin 한마당(9.28)
창립 10주년 기념 사회복지미래를 위한 Talk 콘서트 (11.07)
- 2020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인활동지원사업 선정(6년 연속)
나눔교육운동본부 생애주기별 나눔교육 선정 (보건복지부)

■ 연구회 토론회 개최 연혁 ■

● 2020. 06. 3 (수)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

주 제 : **코로나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티케어의 역할과 전망**

주제발표자: 황명진 교수(고려대학교 공공사회학과장/복지대학원 주임)

- 토 론 자: 1.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2. 사공정규 교수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3. 공선희 전문연구위원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4. 임강섭 팀장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축 사: 차흥봉 前보건복지부 장관

1부 사회: 김기영 교수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부 좌장: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김상훈 국회의원

협력단체: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사)서울시보건협회

한국사회봉사연합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2019. 11. 7(목)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주 제 : **사회복지 전문가가 말하는 대한민국 사회복지 현 좌표는?**

토크발표자:

- 1 : 차흥봉 대표이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전 보건복지부 장관)
2 : 김용하 교수 (순천향대학교 금융경제학과/ 제 9. 10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3 : 성규탁 교수 (미국남가주대학교 석좌교수/ 글로벌 문화실천나눔포럼 상임대표)
4 : 조성철 이사장 (한국사회복지공제회설립명예 이사장/ 제 17. 18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1부, 3부 사회: 강신성 박사

2부 토크콘서트 진행: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행정안전부

● 2019. 07. 17(수)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

주 제 : **포용적복지 정책과 지속가능성**

주제발표자: 김용하 교수 (순천향대학교 금융경제학과)

토 론 자:

- 1 : 조중근 교수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2 : 신소정 교수 (가톨릭관동대학교 치매전문재활학과 학과장)
3 : 김동섭 논설위원 (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

후 원: 행정안전부

● 2019. 05. 09(목)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노인연령 상향 쟁점과 정책과제**

주제발표자: 정순돌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 1 : 김미령 교수 (대구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장)
2 : 이상이 교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 2018. 10. 16(화)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제 1 주제 : ‘노인 자살률 낮출수 없나?’-대인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자: 현 명 호 교수(중앙대학교 심리학과)
토 론 자: 양 두 석 교수(안실연 자살예방센터장)

제 2 주제 : ‘한국 노인의 고령화 과정에서의 자살 위기진단’
-나이 들에 대한 사회적 통증과 배제-

주제발표자: 박 지 영 교수(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김 종 래 대표(복지연합신문)

1부 사회: 문 승 권 박사 (본 연구회 운영위원)
2부 사회: 조 성 철 前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복지TV, 백세시대신문, 한국고령화산업포럼, 생명연대

● 2018. 05. 02(수) 국회의원회관 제 3 간담회의실

주 제 : ‘정치제도의 개혁, 사회복지발전에 왜 필요한가?’

주제발표자: 홍경준 교수(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사)좋은나라 연구원 이사장)
토 론 자: 1. 양재진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행정학과/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
2. 정종순 기자 (중앙일보)
3. 노대명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부 사회: 이 진 박사 (국회 사무처 정책연구위원)
2부 사회: 김진학 박사 (본 연구회 이사/ 전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 2017. 10. 17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과 건강 - 장기요양보험과 중장년 실업대책 및 재교육-

제 1주제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선진적 운영방식 모색

발표자 : 선우덕 명예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 1) 서동민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조선일보)
3) 유승호 교수 (건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성북구치매지원센터장)

제 2주제 : 중장년 실업대책과 재교육운영방식 모색

발표자 : 김영생 선임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토론자 : 1) 한국은 초빙교수 (송실대학교)
2) 최상덕 연구위원 (한국교육개발원)
3) 지은정 부연구위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사)좋은나라연구원

리더십한림원

사회복지교육실천포럼

한국사회복지포럼

후 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 2017. 06. 29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기조 발제 및 좌장: 노인복지정책 방향:고령인력 참여복지(Smarter Ageing)
-정경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발 표 1 : 사회복지서비스 과제: 복지체감도와 현실성

- 김 미 혜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발 표 2 : 문재인정부의 노인 건강과 돌봄의 공약에 대한 평가와 과제

- 전 용 호 교수(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발 표 3 :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과 복지재원 조달방안

-김 재 진 선임연구위원(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리더십한림원, 사회복지교육실천포럼, 한국사회복지포럼

후 원 : 행정자치부

● 2017. 02. 23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프리미엄 특강 1. 한국 복지정책의 효율성-균형의 길

-정경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프리미엄 특강 2 한국사회복지 미래와 과제

- 김진수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2016.12.02 광화문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위기의 한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제 1주제 : 일과 빵의 균형개혁

발표자 : 정경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토론자 : 김도형 (한림대학교 겸임교수)

제 2주제 : 특권과 반칙없는 공정사회

발표자 : 고재방 (전 교육부 차관보)

토론자 : 최영관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1, 2 부 사회 : 이정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공 동 주 최 : 리더십한림원,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16.11.24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 제 : 2016 청소년유해방송물모니터링사업 결과 보고 겸한 토론회

주제발표 : 성윤숙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토론자 : 1) 김경수 대학생(단국대학교 경영학과)

2) 최옥주 교수(건국대학교 영육아보육학과)

- 3) 박열규 강사(경민대학교 효충교육원)
- 4) 박찬균 편집국장(복지연합신문)
- 5) 한병재 감사(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성남지소)
- 6) 양혜지 간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사 회 : 박미출 원장(한국정책연구원)

후 원 : 여성가족부, 국민대통합위원회

● 2016 .10.26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 제: 고령화시대의 보건의료 과제와 정책제안

주제발표자: 이진석 교수(서울대 의대)

토 론 자:

- 1) 이진한 차장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 2) 정순돌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3) 박은자 센터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으로연구실 보건의료정책연구실)
- 4) 최기춘 실장(건강보험공단 보험정책연구실)

후 원 : 행정자치부, 국민대통합위원회

● 2016.06. 21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 제 : 중장년층의 주거복지 정책과제와 대안

발제 1 : 신성식 기자(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부국장)

발제 2 : 이연숙 교수(연세대학교 주거복지연구단 단장)

패널 1: 박신영 소장(한국도시연구소)

2: 구혜영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박재만 과장(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1부 사회 : 고은지 박사(본 연구회 이사/ 어린이집 원장)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민대통합위원회

* e-run TV인터넷 생방송, 데일리안, 한국 NGO 신문 외 5개 언론보도

● 2016.02. 03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 공동주최: 이주영의원실

주 제 : 중앙-지방간 복지재정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주제 발표자 : 류진석 교수(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 신성식 중앙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논술위원)
- 2 : 김태일 교수(고려대학교 행정학과)

3 : 천우정 심의관(국회사무처 행정법제)

4 : 박인환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

5 : 고경환 실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실)

축 사 :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

서상목 前 보건복지부장관/ 지속기능경영재단 이사장/ 본 연구회 고문

김득린 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송암복지재단 이사장

1부 사회 : 조명숙 교수(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회 : 황명진 교수(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 국회방송, 한국정책방송 중계, 성남일보, e-runtv 인터넷 생중계

* 중앙일보 등 다수 언론에 노출 됨

● 2015. 10. 22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 현황과 제안

(*토론회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으로 제공)

주제 발표자 : 김주섭 한국고용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자 :

1 : 이준우 교수(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 김정태 센터장(서울시 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

3 : 김동준 센터장(전경련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4 : 정양범 부장(매일경제 생애설계센터 센터장)

5 : 이수민 (국민연금서울북부지역본부 본부장)

축 사 : 서상목 前 보건복지부장관/ 지속기능경영재단 이사장/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최옥주(본 연구회 부회장/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2부 사회 : 이정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 행정자치부,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 2015. 7. 9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 준비 실태와 정책과제

(*토론회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으로 제공)

주제 발표자 : 정경희 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고령사회연구센터)

토론자: 1. 김현수 박사(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 팀장)

2. 이상철 팀장(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

3. 김경록 소장(미래에셋은퇴연구소)

축 사 : 김영래 현 아주대 명예교수/ 전 동덕여대 총장

조성철 본 연구회 고문/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1부 사회 : 고은지 (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회 : 이정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 행정자치부
협 찬 : 국민연금공단
*** 연합 외 12개 언론 기사

● 2015. 2. 26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중심으로
(*토론회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

주제 발표자 : 최 균 교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원장/ 한림대학교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고수석 연구위원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2. 유근춘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은주 소장 (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야 전문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소)

4. 김원섭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5. 은성호 과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과)

축 사 : 유 지 수 총장(국민대학교)

1부 사 회 : 조명숙 교수 (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 회 : 이정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14. 10. 22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토론회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으로 제공)

주제 발표자 : 김진수 교수(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좌 장 : 도미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남서울대학교 교수

토론자 :

1 : 김재진 박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2 : 최진봉 교수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3 : 유근형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축 사 : 박범진 이사장(미래정책연구소/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고문)

사 회 : 김혜숙 교수(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2014. 6. 20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주제 발표자 : 황명진 교수(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좌 장 : 도미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남서울대학교 교수

토론자 :

- 1 : 양점도 교수 (한국복지행정학회 회장/ 경북대학교 교수)
- 2 : 구종희 석좌교수 (동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 3 : 양성근 회장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 4 : 권오영 변호사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 5 : 이동우 사무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축 사 : 최성균 회장(한국사회복지미래경영협회)

사 회 : 김준경 교수(남서울대학교)

● 2014. 4.30 토론회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관 501호

제 1 주제 ‘저출산 원인과 대책’....양찬희 과장(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제 2 주제 ‘출산장려를 위한 일가정 양립정책’

.....이삼식 박사 (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장)

제 3 주제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 및 일.가정 양립정책’

.....도미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남서울대학교 교수

좌 장 : 김한곤 회장(한국인구학회/ 영남대학교 교수)

토론자:

- 1 : 박미숙 과장 (천안시 여성가족과)
- 2 : 김태희 교수 (백석문화대 /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장)
- 3 : 이명숙 교수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4 : 이은하 분과장(천안시 어린이집 연합회 가정분과)

축 사 : 공정자 총장 (남서울대학교)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천안시, 남서울대학교

후 원 : 보건복지부

● 2013. 11. 14 (목)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의 정책과제와 대안

주제 발표 : 강명순 이사장 사단법인 세계빈관퇴치회)

토론자:

- 1) 박병현 교수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2) 이태진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 3) 서병수 소장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축 사 : 조성철 회장(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영숙 전 세종대학교 총장/ 본 연구회 고문

후 원 : 국민연금공단

1부 사회 : 김혜숙 교수(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부 사회: 이정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13. 7. 5 (금)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창조경제를 통한 한국형 복지전략

주제 발표 : 안상훈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위원장)

토론자 :

- 1) 김정근 박사(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 수석연구원)
- 2) 최 균 교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원장/한림대학교사회복지학과)
- 3) 이창곤 소장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 4) 유종일 교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 5)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축 사 :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본 연구회 고문

오영숙 전 세종대학교 총장 / 본 연구회 고문

후 원 : 현대자동차

1부 사회 : 정윤경 소장 (말샘/글샘언어교육연구소/ 본 연구회 운영위원)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 2013. 3 7(목) 사단법인 허가 및 창립 3주년기념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주 제 :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주요 대선복지공약을 중심으로

주제발표 : 허준수 교수(숭실대 사회복지학부/경실련사회복지위원장)

토론자 :

- 1) 신성식 기자 (중앙일보 사회복지전문)
- 2) 정은상 님 (일반시민패널공모 선정)
- 3) 현진권 소장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 4) 김동열 실장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수석연구위원)
- 5) 김명훈 박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제도위원장/강남세브란스병원사회사업팀장)
- 6) 김재진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축 사 :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호 행복세상 이사장(전 법무부장관)

김영래 동덕여자대학교 총장 (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공동대표)

오제세 국회의원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축시낭송 : 정윤경 (본 연구회 운영위원)

후 원 : 국민건강보험

1부 사회 : 도미향 교수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영동대학교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 2012. 10. 25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주제 발표자 : 신 영 석 부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

- 1) 김동섭 조선일보 사회복지전문기자
- 2) 이준우 교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 3) 조중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 4)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
- 5) 김선희 한노총 사회정책국장
- 6) 윤철수 의료개혁국민연대 대표

축 사 : 김정례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양근 강남대학교 부총장 / 본 연구회 고문

후 원 : 홈페이지

1부 사회 : 나임순 교수(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12. 6. 26.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

주제 발표자 : 이 준 영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 1) 신인석 교수 (중앙대 경영학과)
- 2) 이의영 교수 (경실련 전 상집위원장/ 군산대 경제학과)
- 3) 김광기 경제선임기자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부소장)

축 사 : 심윤종 총장(前 성균관대학교 / 국민희망포럼 이사장)

임성택 총장(그리스도대학교)

후 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미래정책연구원

1부 사회 : 진석범 교수 (동서울대학교 실버복지학과/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mbc 뉴스 토론회풀영상

● 2012. 3. 9.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의 모색

주제 발표자 : 홍경준 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박미출 (일반시민토론자 신청공모자에서 선정)

2. 허준수 교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송실대 사회복지학과)
3. 이정환 과장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4. 박기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본 연구회 이사)
5.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축 사 : 조 성 철 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 인 복 회장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구 본 흥 사장 (cts기독교TV)

최 란 이사장 (대한민국 서울문화예술협회)

후 원 : 고용노동부, CTS기독교TV

협 찬 : 대구은행

1부 사회 : 나임순 교수(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선진사회복지연구회)

*** 연합, 뉴시스 및 5개 언론 기사

● 2011. 12. 20 창립 2주년 겸한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누가, 어디에 기부하고 자원 봉사하는가?—나눔 주체 및 선호에 대한 이해

주제발표: 강철희 교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강학봉 사업본부장 (사회공동모금회)
- 2) 임혜성 팀장 (보건복지부 나눔정책팀)
- 3) 곽대석 사무국장 (cj 나눔 사무국)
- 4) 김현옥 회장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 5) 안명옥 前국회의원/나눔공동체

축 사 :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본 연구회 고문

김원길 전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숙 전 세종대 총장/ 본 연구회 고문

후 원 : 보건복지부, IBK기업은행, CTS기독교TV

축 가 : 소프라노 이윤순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Memory'(추억), <갯츠>

1부 사회 : 석말숙 교수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연합 및 언론사 6기사보도

● 2011. 9. 27 토론회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한국 복지재정의 효율성 및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

주제발표자 :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

토론자 :

1. 박용오 사무총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 홍백의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김재진 박사(한국조세연구원 예산분석센터장)
4. 장상수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선무

축 사 : 심윤종 前 성균관 대학교 총장/국민희망포럼 이사장

후 원 : SK사회적기업지원단

1부 사회 : 박서영 교수 (신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박기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본 연구회 이사)

*** 뉴시스 및 연합 등 5개 언론사기사

● 2011. 6.14 토론회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

주제 발표자 : 김용하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

- 1) 김미혜 교수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 2) 이기영 단장 (보건복지부 베이비부머정책기획 총괄)
- 3) 우재룡 소장 (삼성생명은퇴연구소)
- 4) 최용민 님 (베이비부머해당 토론회 신청공모에서 선정된 일반시민)

축 사 : 김성이 前보건복지부 장관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회장

오카리나 특별연주 : 오영숙 前세종대 총장(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진석범 교수 (동서울대 실버학과)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삼성생명, 한국경제신문

***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 뉴시스 및 6개 언론사 기사 게재

● 2011. 2. 17 토론회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주 제 : 저출산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

주제발표자 : 이삼식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

토론자 :

1. 정영훈 과장 (대통령직속기관 미래기획위원회 사회복지정책과)
2. 도미향 교수(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3. 안명옥 이사장 (한국여성인권진흥원/17대 국회의원)
4.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축 사 :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회장(한국사회복지협의회/ 前 보건복지부장관)

오영숙 총장(前세종대총장)

축 가 : 장선주 (바리톤). 이동형(테너)

후 원 : 보건복지부, 대통령미래기획위원회, 롯데백화점

1부 사회 : 도미향 교수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언론-mbc뉴스토론회 풀영상 및 연합뉴스, 데일리안, 뉴시스, 뉴일리, 조선일보

● 2010. 10. 01 토론회 성남시청 3층 대회실

주 제 : 고령화시대 경제성장의 뒷안길에 선 한국 노인들

주제 발표 : 최성재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사장)

토론자 :

1. 나임순 교수 (백석대학교)
2. 신영석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3. 곽순헌 서기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4. 김영진 회장 (성남시 노인복지시설연합회)

축 사 : 차 흥 봉 전보건복지부 장관 (2013년 세계노년학·노인의학대회 대회장)

후 원 : 성남시, S·K사회적기업지원사업단

1부 사회 : 박기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선진사회복지연구회)

● 2010. 07. 12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한국적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 : 정무성 원장 (前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위원)

토론자 :

1. 박헌준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적기업지원센터소장)
2. 김재춘 정책국장 (아름다운가게)
3. 정태길 사무국장 (함께 일하는 재단)
4. 박찬민 총괄실장 (S·K사회적기업지원사업단)
5. 윤 준현 대표 (주)에이스푸드
6. 모동희 대표 남한산성반딧불이학교(예비사회적기업)

축 사 : 오영숙 전 세종대 총장

축사문 보내주신분 :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선 국회보건복지위원장

*** 언론---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

1부 사회 : 이승훈 교수 (국제대학교)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2010. 02. 25 토론회 성남 신청사 대강당(온누리관)

주 제 :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과 지역복지발전의 과제

주제 발표 : 백종만 학장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토론자 :

- 1) 진석범 교수 (동서울대학교)
- 2) 장항만 사무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지역복지과)
- 3) 이애련 교수 (경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 4) 장운영 도의원 (한나라당)
- 5) 지관근 시의원 (민주당)

축 사 : 장석권 前단국대 총장

김경우 회장 (성남시 사회복지연합회/을지대 교수)

● 2009. 12. 10 오전 11시, 창립기념 제 1차 토론회

주 제 : 미래한국 복지건설을 위한 신구상

주제 발표 : 강욱모 교수 (국립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 1) 김병숙 교수 (건국대학교행정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 2) 김창남 교수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정치학박사)
- 3) 조순태 소장(강남성폭력상담소, 한국사회문제연구원)
- 4) 정무성 교수(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축 사 : 박범진 前 총장(한성디지털대학교/ 현 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

■ 공 지 사 항 ■

1. 2020 년 정책토론회

- 일 시 : 2020 년 9월 중 오후 2시~오후 5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실

2. 청소년과 중장년층이 함께 하는 멘토링 공감여행

- 일 시 : 2020. 08. 25~27
- 장 소 : 강화도 석모도
- 멘티 청소년 20 명, 멘토 중장년층 20명

3. 창립 11주년 기념 및 2019년 정책토론회

- 일 시 : 2020 년 11월 중 오후 2시~오후 5시
- 장 소 :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4. 나눔 확산을 위한 나누미 교육

- 일 시 : 2020 년 7월~ 10월 (15회)
- 장 소 : 추후 공지

■ 협 력 기 관 ■

유한대학교 (총장 이 권 현)
사회안전범국민포럼 (상임대표 백 봉 현)
사)화순군 귀농귀촌정보센터(센터장 전 승 규)
사)한국사회교육복지회 (대표 최 용 희)
사)한국유스호스텔 연맹(총재임 성 준)
서울문화예술 대학교 실버문화경영학과(학과장 조경훈)
사회복지교육실천포럼(회장 성 규 탁)
사)여성자원금고 (이사장 김 근 화)
사) 한국난임가족연합회 (회장 박 춘 선)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센터장 강 경 아)
남서울대학교 복지경영대학원 코칭학과(학과장 도 미 향)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학과장 강 현 정)
리더십 한림원 (원장 정경배)
휴먼서비스아카데미 (원장 최 은 미)
대한민국리더스포럼: 배려와 섬김 (회장 박 창 수)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정 연 보)
사)한국소아당뇨인협회 (회장 김 광 훈)
비)아동안전위원회 (회장 이 제 복)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 후원계좌

1005-702-640482(우리) 예금주: 사단법인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이정숙

●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구성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silent@hanmail.net 070-8793-5202

● ‘한국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2010.7.16),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2011.2.18),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2011.6.15), ‘경제민주화를 통한복지의 이상과 현실’(2012.6.29) 토론회를 MBC뉴스 토론회 풀영상 이나 본 연구회 홈페이지에서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 2014.10.22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2015.2. 26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중심으로』, 2015.7.9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과제』, 2015.10.22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 위한 일자리정책의현황과 정책제안』 토론회자는 국립중앙도서관 요청으로 도서관법 제 20조근거로 보존 ,전수,이용 되고 있습니다.

● 『제 2인생 설계를 위한 전문가 과정 -9988234』

수료증 및 시니어LIFE코디네이터 자격증(보건복지부 승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제2015-001578호)